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8

우룡 스님(경주 함월사 주석) / 정토삼부경(11월 11일)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 봉선사 강설대법회

으려고 성을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지하 감옥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손발이 쇠사슬에 묶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빔바사라 대왕께서 숲에 가서 어떤 신선을 죽이라고 명령해 그대로 시행한 뒤 돌아오다가 붙들려 20년동안 갇혀 있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사세는 '존경하던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구나' 하면서 아버지를 가두게 됐습니다. (중략)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연등을 다는 풍습이 부처님 탄신을 축하하는 의미로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사세의 통곡의 참회가 깃들어 있어요.

아사세가 아버지를 죽이고 난 뒤, 왕이 된 후의 일이에요. 한번은 아사세의 어린 아들이 맨발로 다니다 가시에 찔렸습니다. 아들의 상처가 깊어져 발이 곪아 들어가자 아사세는 입으로 고름을 빨아냅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 위제희가 "대왕이시여, 당신 아버지도 당신을 그렇게 길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마디가 아사세에게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이후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매일 참회의 통곡을 하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다 얻은 신경성 피부염 때문에 아사세의 온몸은 문둥병 환자처럼 진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아사세의 배다른 형 기바의 권유로 부처님께 가게 됩니다. 아사세가 부처님 앞에서 참회의 통곡을 하자 부처님께서 자애삼매(慈愛三昧)라는 정(定)에 듭니다. 그러자 부처님 몸에서 푸른 광명이 나왔고, 그 빛이 아사세를 감싸 피부병이 낫게 되죠. 그때부터 아사세왕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이듬해 4월 8일 왕사성에서 죽림정사까지 등불을 켜게 되는데 이것이 부처님 오신날 연등 다는 풍습의 출발입니다.

조금 늦게 도착한 불자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법당에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가난한 여인의 등불 이야기가 곁들여지게 되죠. (중략)

불교는 보통 자력(自力)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토삼부경>에서는 타력왕생(他力往生)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만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정토삼부경> 이야기입니다.

나는 늘 불교 수행법은 설악산 등산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꼭 어느 코스라야만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불교 수행도 그렇습니다. 염불이건 주력이건 화두건 독경이건 모두 성불로 갈 수 있습니다. 단, 어느 하나를 붙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최근 한국불교가 이상하게 돌아가 화두선이라야 성불할 수 있지 염불은 잘못된 수행방법이라고 하면서, 한평생 염불수행해온 분들을 흔들어요. 그리고는 책임을 안 집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스님을 의지하든 하나만 붙들고 그 스님에게 자주 질문을 드리세요.

원효 스님을 참선 안한 사람이라고 해서 도를 못 깨쳤다고 해야 됩니까? 원효스님 시절에는 좌선법이 없었습니다. 근래 한국불교에서 화두선만 선(禪)이라고 하는데, 넓은 뜻에선 염불도 주력도 절도 선입니다. 선은 넓은 의미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 가다듬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어려운 것이 화두선입니다. 선조사 어른들이 화두를 목숨처럼 생각하라고 한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을 선반위에 올려놓고 이러이러한 사람만이 선반의 물건을 내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릴 수 없다고 섣불리 규정짓지 마세요.

집착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몸에서 나쁜 습관이 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십악(十惡)을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극락정토가 '십만억이라는 나라를 건너는 곳에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탐진치를 극복하기 힘드니 삼대 아승지겁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늘 습관을 제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열 가지 나쁜 습관이 극복되면 마주치는 것이 무량수불(無量壽佛)이고 무량광불(無量光佛)입니다. 무량수는 한없는 시간이고, 무량광은 한없는 공간입니다.

한없는 시간과 공간이 변하더라고 변하지 않는 자리가 바로 아미타입니다.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우룡 스님의 법문은 쉽고 재미있게 진행돼 간간히 참석자들의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

질의

## '나' 놓고 무아에 들면 '그곳'이 바로 극락세계

화랑 스님(동국대 선학과 강사)

**[질문]** 불교는 무아(無我)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아(我)가 없는데 서방정토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명나라 때 운서주굉 스님은 "선의 세계나 정토의 세계나 다른 것이 없다. 정토의 세계도 결국 우리의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설법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룡 스님]** 실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내다' '내다' 그러는데 내가 뭡니까. 나를 토대로 질문하고 나를 토대로 대답하는데 나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단 지금 이 시간 질문하는 사람과 나 사이 이해를 돕기 위해 말이 필요한 거지 말조차 필요 없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착이 없으면 무아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면 '내다'가 있습니다. 저는 농담 삼아 "살고 싶은 사람은 절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 "죽고 싶은 사람만 절에 오라"고 그럽니다.

불교는 '죽는 것'을 가르칩니다. '내다'를 죽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 아닙니까? <금강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다' 때문에 벌어지는 모순을 조목조목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집착 때문에 아(我)가 생기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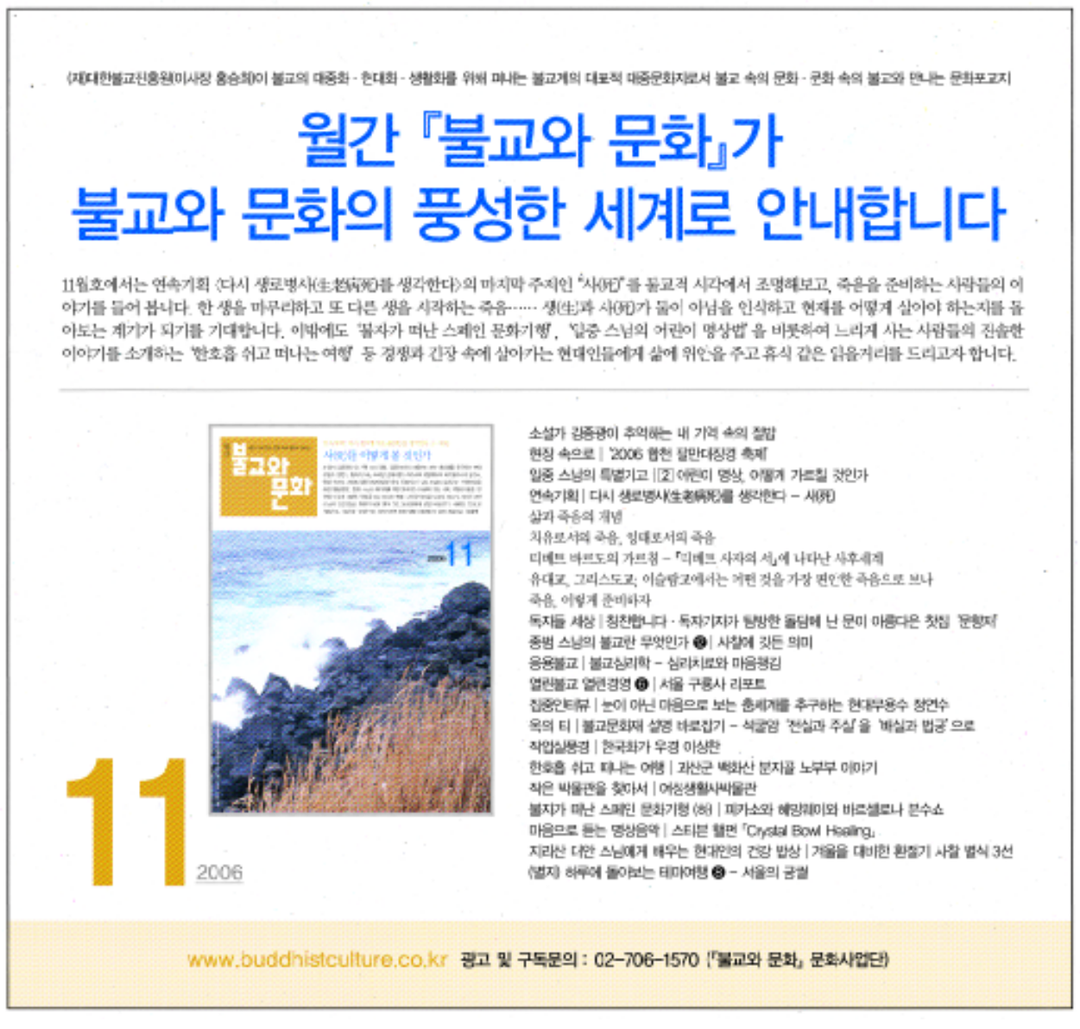
저는 절에서 천도재를 지낼 때 "당신(영가)에게는 원래 깨끗하고 좋은 '자리'가 있다. 여기에 복귀하는 자정 능력이 당신에게 있으니 생각을 바꾸십시오"라고 합니다. 천도재는 스님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가의 자정능력을 되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 <금강경> <아미타경> 등을 몇 천 독, 몇 만 독 하면 일부러 스님에게 부탁 안 드려도, 음식을 안 차려도 됩니다.

서방정토는 대우주에 원래 구성돼 있는 극락입니다. 염불이든 주력이든 화두든 하다보면,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서 제3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서방정토나 극락이라고 합니다. 서쪽은 백색의 세계, 청정의 세계, 모순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꼭 서쪽이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쪽이건 남쪽이건 북쪽이건 수행하는 사람이 체험하는 세계, 거기에서 만나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그곳이 극락입니다. 극락은 실제로 있습니다. 염불을 하든 주력을 하든 화두를 하든 누구든지 노력을 하면 극락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정토왕생 하려면 願 세우고 부단히 정진해야

송재근(창원대 철학과 강사)

**[질문]** 우리가 아는 불교는 자력불교입니다. 또 인과를 자업자득의 대원칙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토사상에서 이야기하는 타력신앙은 자업자득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타력사상을 말하는 정토사상이 선불교를 표방하는 우리불교에서 대중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룡 스님]** 열반하신 관응 스님은 "부자라고 해서 모두 미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먼저 "미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도 무엇을 이루려면 먼저 원(願)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 불교를 의지한다, 정토왕생한다고 하는 것도 원이 있어야 됩니다. 정토왕생하는 첫째 조건이 원이고 발심입니다. 정토발원을 하신 이는 먼저 계(戒)·정(定)·혜(慧)를 닦아서 신(身)·구(口)·의(意) 삼업(三業)을 맑게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계의 그릇이 깨끗해야 정의 물이 맑고 정의 물이 맑아야 지혜의 달이 비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속에 안정 침착이 이루어지고 안정 침착 속에서 슬기로운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갈 때 우리의 일상생활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관응 노스님의 "돈이 있다고 다 미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미국을 가고 싶다, 가야겠다는 생각에 미국 갈 준비를 하듯 우리가 정토왕생의 원을 일으켜도 실천하는 노력 곧 나의 마음가짐, 몸가짐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염불을 곁들여 지혜가 날로 깊어지고 그 지혜 속에서 선정(禪定)을 겪으면서 차츰 부처님 나라에 가까워지면서 정(定)속에서 직접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환희심을 내면서 차츰차츰 향상해야 정토왕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토왕생을 원하고 가르쳐주신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의 옛 어른들이 모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정토 왕생을 일러주셨고 실천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른의 말씀을 거울삼아 부지런히 수행을 하면 모두 쉽게 정토왕생, 즉 성불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힘써 정진하십시오.

정리=남동우 기자